

# 아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더 높고 새로운 순천 개막”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식에서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하고 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목표 관람객 수 800만 명을 초과한 980만 명이 입장하며 흥행에 대성공을 거뒀다. 순천정원박람회는 214일이라는 긴 여정을 마치고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은 오전그린광장에서 '새로운 시작 The 높게'라는 주제로 열린 폐막식에서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이룬

### 980만 관람객 모여 흥행 성공...정원 열풍 일으키며 대단원 노관규 순천시장은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이룬 꿈결같은 시간”

꿈결 같은 시간이었다”고 회상하고 조직위 및 순천시 공직자, 시민들의 열의와 정성에 감사 인사했다.

시민 참여가 빛을 발해 순천의 새 역사를 썼으며, 순천에서 비롯된 정원 열풍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 모두의 자부심은 대단히 상승했다.

2023순천정원박람회의 대단원은 남성현 산림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관기관, 박람회 총사자, 자원봉사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지켜봤다.

정원박람회 폐막은 치어리딩과 가수단 입장으로 막을 열고, 카드섹션과 폭죽 세리머니, 214일간의 여정을 담은 영상 상영, 축사와 폐회사 순서로 펼쳐졌다.

가수단 페레이드는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에너지를 모았던 자원봉사자, 일류플래너,

조직위 직원 등 250여 명이 함께 깃발을 들고 행진해 진한 감동과 강한 울림을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원박람회 성공을 축하하며 산림청장으로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대한민국이 날마다 정원 문화에 흠뻑 빠지고 정원과 함께 치유되는 그날까지 정원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원박람회를 총괄해 온 노관규 시장은 축사에 앞서 시민들 앞에 큰절을 올린 후 폐회사를 낭독했다.

노 시장은 “지난 214일은 순천이 정원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대한민국 전체가 순천에 열광한 꿈결같은 시간이었다”면서 “여러분 덕분에 정원을 찾은 980만 관람객, 순천시민들이 끝내주게 행복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고마움과 감동을 숨기지 않았다.

노 시장의 고마움은 순천시민과 시청 공직자, 총사자, 자원봉사자, 박람회를 지원한 순천시의회, 전남도, 산림청과 정부를 향한 것이었다.

노 시장은 “순천은 이제 214일의 기간, 980만의 관람객, 333억 원의 수익금 같은 숫자는 역사에 남겨두고,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하려 한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폐막선언과 동시에 “더 높고 더 새로운 순천”의 개막을 선언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올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장 7개월간 치러졌다.

정원을 도심까지 끌어들이며 소득 3만달러 시대 맑고 밝은 녹색도시의 모델을 제시한 이번 행사는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넘어 최종 980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

510개 이상의 기관·단체(지자체 200여 곳)의 견학·벤치마킹에 이어 ‘정원 열풍’을 불러오는 등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새롭게 쓰고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순천=김승호 기자

## 고흥군, 주민 맞춤형 버스 노선 개편 주민설명회 개최

### 2주간 16개 읍면 순회하며 노선 개편 홍보 및 주민 의견수렴

고흥군이 기존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운행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추진중인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이장·부녀회장 회의 일정에 맞춰 16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시간선 체계 도입 및 불필요한 노선 통합 등 전반적인 개편 사항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7월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를 기

점으로 8월에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노선 개편에 대한 주민 의견을 1차 수렴했으며, 9월에는 3개 운수업체와 노선 관련 조정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고흥군은 용역 초창기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노선 개편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개편 초안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군은 1차 주민설명회 이후 추가적으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

우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운행노선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3개 운수업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이용자·운영자·관리자가 모두 만족하는 개편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현지 여건에 맞는 노선 운영과 교통 수요에 맞춰 노선을 정비해 군민이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누구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여수시 국동항 건설공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30년까지 1415억원 투입...소형선부두·방파제 등 어항시설 확충

여수시 숙원사업인 국동항 건설공사가 지난 달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시에 따르면 국가어항인 국동항은 전국 국가어항 중 제일 많은 등록 어선수를 보유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항일에도 어항시설이 부족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비

1,415억 원을 투입, 오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국동항에 소형선부두 780m, 부잔교(접안시설) 12개소(1,209m), 돌제식부두 220m, 방파제 100m, 파제제 470m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 어항이자 남해권의 중심 수산업 전진기지에 부합하는 어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보성군, 제3차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기부문화 조성 및 홍보 방법 논의

보성군은 지난달 31일 보성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3차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

기금운용 심의회에서는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원안 가결했으며, 보성군 고향사랑기금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 계획에 대해 토의한 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부문화 조성 및 홍보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고향사랑기금사업은 ▲이동식 무장에 경사로 설치(3천만 원),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 소통 아카데미 운영(4천만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확대 지원(6천만 원)으로 사업비는 총 1억 3천만 원이다.

향후 의견된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성군의회에 상정하는 등 기금설치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 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